

## 자동차 SDV 전환, 표준화로 앞당긴다

- 현대차/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대표기업 망라, “SDV 표준화 협의체” 출범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주요기업과 함께 “SDV(소프트웨어중심차량) 표준화 협의체”를 결성하고 11월 7일 소피텔서울잠실에서 출범 행사를 개최하였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SDV는 자동차 구매 후 기능 추가 및 성능 향상이 가능하여 ‘바퀴달린 스마트폰’으로 불린다. 휴대전화 시장이 피쳐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재편되었듯이, 세계 자동차 업계는 SDV 상용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는 현대차 포티투닷이 올해 4월 플레오스OS를 공개하며 SDV를 위한 개방형 생태계 추진을 공표하였다.

SDV 산업은 자동차, 부품, IT 등 여러 기업과 개발자가 참여하는 개방된 생태계로 운영되므로 다양한 부품, 소프트웨어 활용을 위해 데이터, 인터페이스 등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이에 국표원은 국내 대표기업 및 전문가들로 TF를 구성, 지난 6월부터 준비 논의를 거쳐 이날 공식적으로 “SDV 표준화 협의체”를 출범하게 되었다.

“SDV 표준화 협의체”는 현대차 AVP본부 송창현 사장을 의장으로 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사무국을 맡으며,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KT, 네이버, 현대모비스, HL만도, KG모빌리티, 현대오트모터, LG이노텍 등 SDV 생태계 관련 65개 기업과 6개 연구소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한국의 IT경쟁력을 활용, ‘자동차+IT’ 생태계 확장도 주요전략으로 추진코자 하며, 4개 표준화 분과에서 SDV API 표준, 아키텍처 표준, 데이터 표준 등 시급한 표준안 개발을 ‘26년말까지 우선 완료키로 하였다.

국표원 김대자 원장은 “SDV는 우리 자동차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이라며, “국표원은 업계의 표준화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가기술표준원	책임자	과 장	김용득 (043-870-5370)
	기계융합산업표준과	담당자	사무관	남경민 (043-870-5463)

## □ 행사 개요

- (목적) SDV(소프트웨어중심차량) 산업육성 및 자동차+IT 생태계 융합을 위한 표준화 협의체 구성 및 표준화 착수 홍보
- (일시/장소) '25.11.7.(금) 14:00~15:00, 소피텔서울잠실 그랜드볼룸(4F)
- (주최/주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한국표준협회
- (주요참석자) 국표원장, 현대차 AVP본부 송창현 사장(협의체 의장), 표준협회장, SDV 표준화 협의체 참여 기업 임원/전문가 등 100여명

## □ 세부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4:00~14:05 ('5)	개회 (10)	▶ 개회 및 내빈소개	사회자
14:05~14:10 ('5)		▶ 모두발언	현대차 AVP본부 송창현 사장(협의체 의장)
14:10~14:15 ('5)		▶ 모두발언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
14:15~14:20 ('5)		▶ 모두발언	한국표준협회 문동민 회장
14:20~14:40 ('20)	SDV 산업동향 (20)	▶ SDV 산업 동향	보스턴컨설팅그룹 유승훈 MD파트너
14:40~14:50 ('10)	SDV 표준화 추진계획 보고 (20)	▶ 주요국 표준화 동향 및 협의체 운영 방향	국민대 정구민 교수 (협의체 운영위원장)
14:50~14:55 ('5)		▶ SDV 공통 국가표준 작업반(WG1) 운영계획	한국자동차연구원 이원석 센터장
14:55~15:00 ('5)		▶ SDV API 국가표준 작업반(WG2~4) 운영계획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박부식 센터장
15:00~	폐회	▶ 표준분과 참여 안내/폐회 및 사진 촬영	사회자/주요내빈